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핑안손보, 전화판매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성공 신화

□ 대형 손해보험회사인 핑안손보(平安財險)가 전화판매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업계 최초로 4년 연속 연평균 100% 성장률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.

- 2006년 업계 처음으로 전화판매 자동차보험을 판매해 현재 전국 957개 지점 천 명이 넘는 상담원을 보유한 핑안손보는 2009년까지 4년 연속 연평균 100% 성장률을 시현하는 등 전화판매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약 80%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.*

* 2009. 2. 23 키리위클리 해외금융뉴스 '핑안보험, 중국 최초로 자동차보험 전화판매 전국망 확보' 편 참조

- 특히, 작년 전화판매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전년대비 2배 급증한 약 49억 5천만 위안의 수입보험료를 시현한 것은 물론, 진출 3년 만에 최초로 순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.

□ 업계는 전화판매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비 및 인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, 전국 네트워크 구축, 원가절감 등에서 성공을 거둔 핑안손보가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조언하고 있음.

-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이 업계간 출혈 경쟁으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전화판매 자동차보험시장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하고 저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많은 손해보험회사들이 진출을 희망하고 있음.
- 자동차보험 전화판매 자격을 신청한 30여 개 손해보험회사들 중 핑안보험을 포함한 인민보험공사(人保), 양광보험(阳光) 등 12개 보험회사만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, 대부분 미미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전문가들은 전화판매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콜센터 및 인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, 보험계약서 적시배송 등을 위한 전국 배송 네트워크 구축, 다양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한 인당 효율성 향상 등에 성공한 핑안보험이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고 조언하고 있음.

(중화공상시보, 5/28, 중국보험보, 6/7, 베이징상보, 6/9)